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명칭

1.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성낙소) :
1932.06.11-1936.07.08 (**요츠야선교회**)
2.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이인범, 신신근) :
1936.07.08-1946.12.10 (**요츠야선교회**)
3. **기독교회**(J. 마이클 쉘리, 존 T. 채이스, 김요한) :
1935.04.25-1944.06.26 (**협의회, 총회**) - 해방 후 복원
4. **기독교회**(基督の教會, 동석기) :
1937.05.12.-? (**교역자회**) - 해방 후 복원

1,2,3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 (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 유악기)의 소속이고,
4는 '그리스도의 교회들' (Churches of Christ, 무악기)의 소속이다.

1.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윌리엄 D. 커닝햄) (William D. Cunningham/1864-1936)

✓1901년 10월 1일. 커닝햄 가족 일본 도착

✓1907년 커닝햄과 M. B. 매든(Madden) '평양 대부흥운동'의 절정기 목적.

✓1923년 아이오와(Iowa) 주민이 한국선교 위해 2천달러 현금 약속. 6백 달러 입금.

✓1923년 9월말 커닝햄, 한국 방문 계획. 1923년 9월 1일 동경과 요코하마 일대 대지진 발생으로 입국지연.

✓1924년 3월 중순 동경 유학생 박제곤이 선교기지 물색을 위해 입국.



1924년 3월 25일

커닝햄 부부 입국.
서울선교기지(포교
소) 설립.

1930년 4월 27일

서울 제1교회(요츠
야선교회 제13번째
교회) 조직.

1931년 9월 하순

성낙소 목사 포교책
임자 입국.

체이스 한국 시찰.



서울조선인기독교회(1924-45)를 섬긴 요츠야선교부의 사역자들
상좌부터 이원균(1924.10-27, 박재민의 뒤를 이음), 김광훈(1927중반-29.03)
박흥순(1929.04-31, 1930년 4월 27일에 선교기지에서 교회로 승격시킴),
이성록(1930.04-31), 성낙소(1931.09-33.05,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
이인범(1933.06-43,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

성낙소 목사 약력 및 업적: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 ✓ 구세군사관학교 수학(1915.11-1916.08). 부여, 익산, 영동에서 사역.
- ✓ 1919년 충북 영동에서 독립만세운동 주도.
- ✓ 1920년 7월 30일 포교폐지계 제출.
- ✓ 경성성서학원(성결교) 수학(1920.08-22.03).
- ✓ 1922년 3월 구세군 하사관으로 백의종군하여 정사관으로 복직.
- ✓ 1926년 1월 구세군 사관직 사임.

● 1927년 정월

향촌인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에 '기독지교회' 설립.

- ✓ 1930년 5월 '횡빈조선인기독교회'에 부임. 11월부터 1931년 9월 까지 주임목사로 섬김.
- ✓ 1931년 9월 하순 요츠야선교회 조선지역 포교관리자로 입국.
- ✓ 1932년 서울 제1교회를 계동 127번지에서 송4동 4번지로 이전.

● 1932년 6월 11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 제출.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84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W.D.C.

1882

0130

No whom it may concern,
This is to say that Mr. Park is being
of 127 Meigs, Seoul, is our worker in
Korea vicar of Mr. Henry Leon Park,
W. D. Cunningham.

身分証明書

京城桂洞(一)

成樂瑞(성락서)

右者在朝鮮當教會教役者

ナニトヤ言 追テ朴興順(?)ハ吾コ所方ナリ

一九二九年三月八日

中東回谷教會(五)キキ

管理長 李是六(李是六)

0130

朝鮮總督府

7.8.26

官報掲載

昭和七年
八月
六月

◎

官報掲載案内

ヨリ首題ノ角書別紙ノ通リ提出シタル處同派ノ我
ガ國ニ於ケル本部ハ内地東京市ニ所在シ此度其
ノ延長トシテ布教致度ニシテ趣ニ付為念文部
省ハ照會致シタル處理ニ基督教會ノ一派トシテ
取扱ヒ布教並教會等ニ付テモ大々正當ノ手續ヲ了
シ布教シツアル趣ニ付右受理ノ上左案ノ通リ公告
相成可然故相同リ

布教管理有設置局ヲ提出シタル之ノ左ノ如シ

布教管理有設置局ヲ提出シタル之ノ左ノ如シ

東京基督教會總務部
不教道宗城南宗南宗地

成樂館

0122

朝鮮總督府

7.8.26

官報掲載

教規別途係管

未
完結
中
種

京畿道京城府崇四洞四番地成樂館ノル之

布教管理有設置局ニ關スル件

件名 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會

總督 朱

政務總監 東上在

文書課

國信長中澤

事務官

主務 學務局

社會課長

主任

施行月日
昭和七年八月廿六日
昭和中
日接受
關係
番號
社 第一六九號
海關七年八月廿六日

昭和七年八月廿六日

第250號

0121

●1932년 말 **경성기독교회**를 수창동으로 옮기고 12월 17일 및 12월 24일 **아현기독교회**(김문화)와 1933년 2월 1일 **기독교회 인천교회**(성낙소)를 조선총독부에 제출.

●서울 제1교회인 **경성기독교회** 담임, 인천 난도(남동)교회 감독목회(요츠야선교회 제15번째 교회로 승격, 침례 52명), 서울 송4동 주일학교(유치원) 설립(1932년 3월 14일), 기독교회 인천교회 감독목회(침례 18명, 요츠야선교부 제16번째 교회로 승격).

●**성낙소의 전임자들은 조선총독부에 포교계를 제출하지 않고 불법으로 전도활동.** 커닝햄은 사이토 마코토의 구두허가를 승인으로 착각. 따라서 1924.05-1932.05까지 8년간의 흔적이 국가기록원에 남아있지 않음.

●**사이토 마코토:** 조선총독부에 종교과를 신설하여 기독교에 우호 정책을 펼쳤던 조선총독부 총독(1919-27, 1929-31) 및 일본 정부 수상(1932-1934)을 지낸 **사이토 마코토(齋藤 実, 자작)** 부부는 커닝햄 부부와 절친한 이웃이자,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선교를 허가한 인물.

✓1932년 말 혹은 1933년 초 **이원균**이 평북 구성군 호젠(방현)에 파송되어 1937년 중반까지 성공적으로 사역.

✓1933년 6월 5일 동경 심천조선기독교교회(제10교회)의 담임목사 **이인범**이 조선기독교교회 포교책임자로 피선. 동년 9월에 입국하여 **기독교회 인천교회**에 부임하였으나 포교자 및 포교관리자 변경계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활동. **마이클 셸리가 이 사실을 1935년 5월 25일 문제 삼음으로써 커닝햄과 분쟁.**

●**커닝햄의 집요한 노력 끝에 1936년 1월 10일 포교관리자변경계 조선총독부에 제출.**

✓성낙소 목사는 요츠야선교회로부터 1933년 5월 20일 해임된 후로도 **1936년 1월 10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소환되어 사직서를 쓰기까지 총 4년 4개월(합법적으로는 3년 7개월) 정도 포교관리자 신분을 유지.**

✓1935년 4월 커닝햄 4번째 한국 방문.

✓1936년 3월 커닝햄 5번째 한국 방문. 커닝햄은 포교관리자변경계 승인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으로 돌아감.

- 1936년 6월 24일 20시 45분 커닝햄 미국에서 선교여행 중 암으로 사망.
- 경제대공황, 후원금 감소, 1934-36년 채이스, 셸리, 성낙소와의 분쟁.
- 부흥사(**populist**) 기질의 이인범에의 지나친 의존이 분쟁의 한 축이었다.
- 채이스, 셸리, 성낙소가 **theorists**였다면, 커닝햄, 이인범, 이원균은 **populism**에 의존하는 **populists**였다.



布教管理者辭職届

私儀

今般都合ニ依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會朝鮮布教
管理者ヲ辭職致候ニ付此段及御届候也

昭和十一年一月十日

東京四谷宣教會
基督教會

朝鮮布教管理者 成樂 紹

朝鮮總督 殿

1353

學務局長

社會部長

官報掲載

主任

官報掲載載案

記帳及校令濟

布教管理者變更届

布教規則第六條ニ依リ

布教管理者變更届ヲ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届出年月日	教名	舊管理者氏名	新管理者氏名
昭和十一年一月十日	東京宣教會	成樂 紹	本 寅 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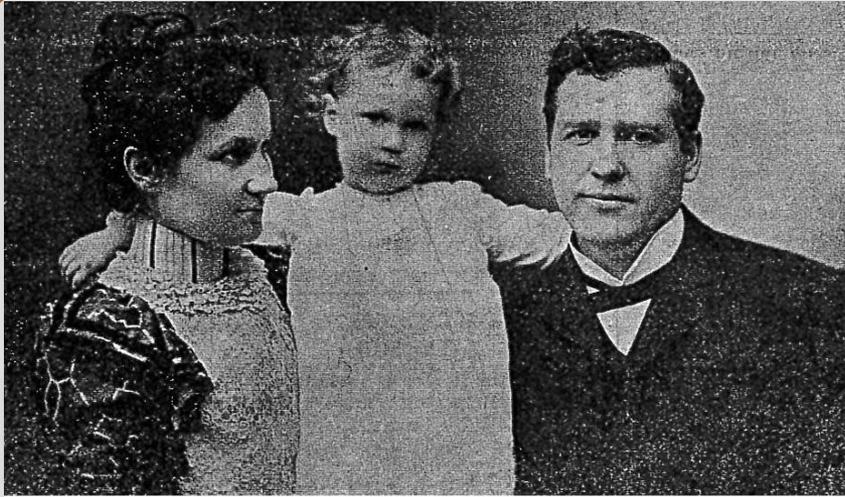
完 種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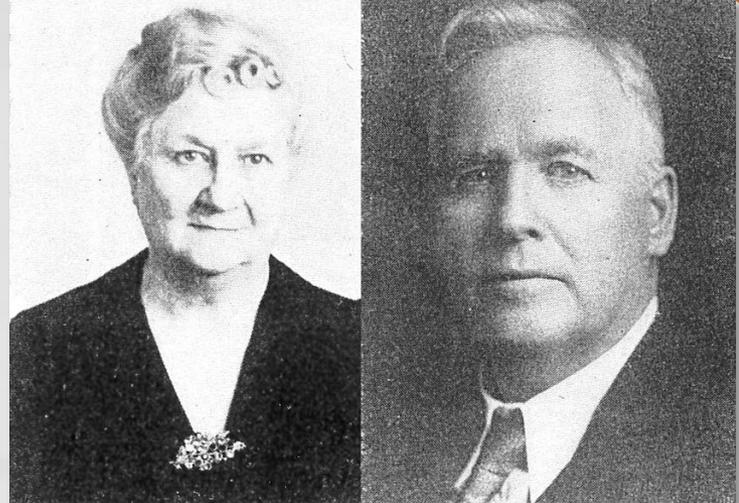
1315

49/

一月十日



우측부터 윌리엄, 엠마이즈, 에밀리 보이드 커닝햄



에밀리 보이드와 윌리엄 커닝햄 선교사 부부

●1936년 6월 24일까지 한국(12개)과 일본(3개)에 조선인기독교회 설립. 인천 3개(송현동, 유동, 금곡동), 서울 3개, 평북 구성군 2개(방현면, 오봉면), 평북 정주군 2개(용포동, 근담동), 황북 중화군 대류리 1개, 경남 마산 1개, 일본 동경 2개(삼하도, 심천), 횡빈 1개(요츠야선교회로부터 독립).

●커닝햄 사망시 한국에 12명, 일본 조선교회들과 유치원 및 일요(주일) 학교들에 다수의 한국인 사역자들이 요츠야선교부에 고용되어 있었다.

그러나 커닝햄 사망시까지 합법적인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는 성낙소가 제출한 3개가 전부였다(경성교회, 아현교회, 송현동 인천교회).

回笈英譯文

29th July, 1936.

Mr. Leon L. Myers,
President of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Fourth and Elm Street,
Cincinnati, Ohio, U.S.A.

Dear Sir:

In reply to your letter of the 25th May last in which you asked for information regarding the mission work of the Tokyo Yotsuya Mission in Chosen we beg to give you the following indications.

The Tokyo Yotsuya Mission, appointing Seirakusho (Song Nak So) the superintendent of the mission work here, presented its application to commence work on the 11th June 1932.

There are now three churches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Seirakusho resigned his post as superintendent on the 10th January 1936, and on that day Rinhan (Yi In Pom) was reported as successor to Seirakusho.

The churches above mentioned are;

1. The Aken Church of Christ, the Yotsuya Mission, Tokyo. No. 57 Aken-cho, Keijo.
2. The Keijo Church of Christ, the Yotsuya Mission, Tokyo. No. 190 Sekisen-cho, Keijo.
3. The Jinsen Church of Christ, the Yotsuya Mission, Tokyo. No. 89 Shokenri, Jinsen.

Yours faithfully,

Director of the Education Bureau

1456

585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33年度 第416表

『1933年(度)末 教會堂 布教所 講義所 現況』

基督教	
天主公教	327
朝鮮耶穌教長老會	2,583
基督教朝鮮監理會	814
聖公會	87
露國正教會	6
日本基督教會	12
日本메소제스트教會	16
日本組合基督教會	7
第七日安息日耶穌再臨教	129
東洋宣教會	149
救世軍	74
朝鮮基督教會	27
東洋宣教會호리네스教會	7
朝鮮會衆基督教會	26
基督同信會	2
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會	3
總數	4,269

2. '기독교회'(마이클 셸리 선교사)

- ✓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가족 1935년 3월 20일경 입국.
1935년 3월 24일 기독교회 인천교회 방문.



마이클 셸리 선교사 환영 기념 사진(1935년 3월 24일)
인천(송현)교회로서 커닝햄이 소천 3개월 전에 핏치와 방문했던 곳이다. 셸리의 우측이 딸 레이철이고 그 옆이 이인범이다. 셸리 부인 옆은 공립교사 출신으로서 셸리와 선교부를 도왔던 김영배 집사이다.

●1935年 4월 25일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 제출

四、布教管理者、權限

イ、基督敎會ヲ代表ス

ロ、布教事務ヲ總攬ス

ハ、敎職、身分進退及賞罰ヲ處断ス

五、布教者監督方法

管理者由ラ各敎會ヲ應訪シ或ハ
隨處報告ヲ以テ監督指導ス

六、布教管理事務所、位置

京城府南大門通セブラス病院構内

七、布教管理者、氏名

セ、ミカエル、シエー、

Michael Shetty

0440

布教管理者設置届

昭和十年四月十五日

京城府南大門通セブラス病院構内

セ、ミカエル、シエー、

Michael Shetty

朝鮮總督府第一成 敎

宗敎及基督敎、名稱

キリスト敎 基督敎會

六、敎規

特別ナル規定ナクテ聖書ノ通り各敎會ハ自
治制ナル、過半敎投票ニ依リ職責ヲ任命ス
各敎會ハ自分ノ罪ヲ悔改シテ洗禮ヲ受ケテ
者ニ限リ會員トス

ニ以上ノ執事ヲ置イテ一般財政ヲ處理ス
ニ以上ノ長老ヲ置イテ敎會ヲ靈的ニ治理ス
敎師及傳道師ヲ置イテ十服信徒ヲ誨敎シ
止メ聖書ヲ以テ敎養ス

儀式、 聖餐 毎日曜日此ヲ行フ
洗禮 河又ハ海ニ臨ミテ行フ

三、布教方法

布敎所ニ於ケル布教、巡回布教、
家庭傳道、通信布教、路傍傳道、

0439

五月六日

一九三五年

10.26

✓1935년 5월 25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불법성
미국교회들에 고발. 커닝햄 즉각 반박. 셸리 가족 영구 귀국
결심. 귀국할 때 이인범의 불법성을 입증할 공증서류 지참.

Please return this

H. TAKECHI

Barrister at Law (Seoul) Keijo, Oct. 5, 1935

This is to certify that I have checked the following statements concerning the Yotsuya Mission in Chosen, with the records in the office of the Government General in Seoul, and also with the administrative laws governing missions in Chosen, and have found them to be true and accurate in every detail.

1. It is illegal to engage in preaching, or to organize churches in Chosen without a permit from the office of the Government General.
2. The superintendent of the mission must reside in Chosen.
3. The one who establishes a new church must report the fact to the Government General and the report must be indorsed by the superintendent of the mission.
4. The qualifications of the preacher and the name and place of the church must be reported, and when any change is made in pastor, or in the location of the church, the same must be reported to the office of the Government General within ten days.
5. In case of the failure of a mission to secure a permit, or to report the churches established under a permit, the police have power to close the church.
6. While Song Nock So holds the permit for the Yotsuya Mission the Government General will not issue another permit to that mission for the territory of Chosen.
7. The superintendent of the mission must sign all reports.
8. Song Nock So, residence, No. 4 Shoong So Dong, Seoul, has produced a report to the Government General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Yotsuya Mission, Church of Christ, Tokyo, Japan, dated June 17th, 1932. He holds the only permit issued to that mission for Chosen.
9. Under the Yotsuya Mission permit held by Song Nock So, only three churches were reported, as follows:
(1) December 4th, 1932, at No. 57 Arhjun Ri, Yong Kang, Myon, Seoul.
(2) December 7th, 1932, at No. 190 Chuk Sun Dong, Seoul.
(3) February 1st, 1933, at No. 89 Song Hjun Ri, Chemulpo.
10. There are no churches located at the addresses given above, and no record of their having been transferred. I personally visited all three locations today and found no church at any of them.
11. In the Tokyo Christian for June, 1935, page one, column two, I have read the following statement: "The Yotsuya Mission has eighteen groups of Christians in Korea, including twelve churches."
If this statement is true, these twelve churches are working illegally, and none of them have been reported.

IN WITNESS WHEREOF, I hereby affix my hand and seal.

HIROKATA TAKECHI (Seoul)
Barrister at Law

From reports that are reaching us from the U.S. it has become quite apparent that W. D. Cunningham, having largely wrecked the work of John T. Chase, and the three single ladies, is now determined to wreck not only our reputation, but the work we are endeavoring to do here. We do not believe that the Homefolks would tolerate this, if they had the facts. We have decided to return home with these facts, as it seems the only way. We are asking you to stand by us until the evidence is in. From the time you receive this letter, please send all offerings and communications to us, in care of Clair Hutchison, Corona, California.

J. Michael Shelley

1464

572

THE YOTSUYA MISSION

YOTSUYA, TOKYO, JAPAN

ESTABLISHED 1901

W. D. CUNNINGHAM, Director

Tokyo, Japan, Aug. 15, 1935.

To You as a Lover of Truth and Honor:

Before me lies a pile of letters—circular and personal—all written by J. M. Shelley of Korea to faithful rope-holders of the Yotsuya Mission seeking to win their support by vilifying the Yotsuya Mission.

I want to make proper allowance for the utter lack of experience on the field, but must call attention to a number of glaring untruths and dishonorable attitudes unworthy of a Christian. In personal letters and in a circular letter dated May 23 and mailed to our rope-holders, Mr. S. asserts:

- ① The Yotsuya Mission has no government permission to work in Korea, is working secretly and in violation of law, and our churches are liable to be closed in disgrace at any time. There is absolutely no truth in this. We have, and always have had, government permission to work in Korea. I visited the Governor General in Seoul (a personal acquaintance and formerly a near neighbor in Tokyo) before beginning work in Korea, learned all the legal requirements and observed them every one. July 23, 1933 I visited the Governor General's office in Tokyo to learn if there were any changes in the law. There were none. "Working secretly"? When granting a thousand yen bonus to our Mission a few years ago to help pay for the first mission building ever erected in Japan proper for the benefit of Koreans, the government sent us a generously-worded letter commending our efforts for Koreans. "Secretly and against the law"?
- ② Only two ministers are employed to care for our twelve churches in Korea. We have nine salaried workers in Korea and many volunteer workers. All the churches are well cared for.

3. We have dismissed fifteen men. We would readily dismiss that number or more if necessary to maintain our M. T. standards, but not half that number have been dismissed.

4. Our workers in Korea want to work with him. (Mr. S. has met the workers in only two of our twelve stations). One man was so incensed by the dishonorable efforts made to win him away from the Yotsuya Mission that he wrote saying even if we insisted upon his working with Mr. S. he would refuse. (An Oriental teaching honor to an Occidental!).

5. Under pressure to keep him in Tokyo. That "pressure" consisted of a mere suggestion. It was apparent before he reached his field that Mr. S. knew a thousand times as much about mission work as would know five or ten years hence, and we believed it would be wise for him to get a little experience as older missionaries before plunging into a new field all alone. He had and has nothing to learn.

Notice the standard of honor—or lack of it—in the following:

1. I sent him a long list of our best rope-holders and wrote them personal letters asking them to assist Mr. S. They did so. He used that list in mailing out his circular letter of May 23 in which he viciously, but rather stupidly, misrepresents our mission. A California friend received a copy of that letter and promptly sent us \$60 dollars.
2. He accepted the hospitality of our home for himself and family for a week while plotting and working against us.
3. He accepted 150 dollars from the Yotsuya Mission to help pay his passage to Korea—and used it against us.
4. As he sees it, the only reason why the Yotsuya Mission evangelists are not working with him is lack of enough funds on his part to buy them over. An honorable mind would see two other reasons—the evangelists themselves and the Yotsuya Mission.
5. Mr. S. openly and brazenly appeals to our rope-holders for funds with which to win our workers away from us, and declares his willingness to take over all our evangelists in Korea if his supporters so desire!

Remarkable mental gymnastics—notice the contradictions:

1. He tells of one of our churches of a hundred members of whom only forty have been baptized, and yet declares we do not practice open-membership! (Our attitude on open-membership is well known).
2. He promised cooperation and has practiced only opposition.
3. Our work in Korea is carefully managed, and yet carefulness is proven by the weeding out of un-working men.

The many critical comments on that circular letter which have been sent to us indicate that we have nothing to fear from its results.

We sign this letter with regret that it is necessary to waste time and postage in defending the Lord's work.

W. D. CUNNINGHAM, Director
Emily E. Cunningham
Edith Shimmel
Ethel Jones.

1454

583

✓ '그리스도인 환원 협의회' 회장 1936년 5월 25일 조선총독부에 조회서 발송. 조선총독부 1936년 7월 29일 최초 회신.

回笈英譯文

29th July, 1936.

Mr. Leon L. Myers,
President of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Fourth and Elm Street,
Cincinnati, Ohio, U.S.A.

Dear Sir:

In reply to your letter of the 25th May last in which you asked for information regarding the mission work of the Tokyo Yotsuya Mission in Chosen we beg to give you the following indications.

The Tokyo Yotsuya Mission, appointing Seirakusho (Song Nak So) the superintendent of the mission work here, presented its application to commence work on the 11th June 1932.

There are now three churches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Seirakusho resigned his post as superintendent on the 10th January 1936, and on that day Rinhan (Yi In Pom) was reported as successor to Seirakusho.

The churches above mentioned are;

1. The Aken Church of Christ, the Yotsuya Mission, Tokyo. No. 57 Aken-cho, Keijo.
2. The Keijo Church of Christ, the Yotsuya Mission, Tokyo. No. 190 Sekisen-cho, Keijo.
3. The Jinsen Church of Christ, the Yotsuya Mission, Tokyo. No. 89 Shokenri, Jinsen.

Yours faithfully,

Director of the Education Bureau

1456

585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TRUSTEES
LEON L. MYERS
PRESIDENT
D. A. TRINKLE
VICE PRESIDENT
L. L. PARIS
SECRETARY
IRA D. MATTHEWS
TREASURER
RALPH L. RECORDS
JAMES DEFOREST MURCH
W. M. MARLER
L. L. HINTON
J. E. DE GAFFERELLY
R. E. ELMORE

701-2 PEOPLE'S BANK BUILDING

FOURTH AND ELM STREETS

CABLE ADDRESS 'CHRISTIAN' CINCINNATI

CINCINNATI

ADVISORY BOARD

J. E. THRIFT
CHAIRMAN
BYRON CASSELL
GIRNIE L. REEVES
A. B. CROUCH
O. N. SHIRLEY
DR. J. H. WILKIN
JAS. G. HURST
EARL CHILDERS

AND HE SAID UNTO THEM, GO YE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UNTO EVERY CREATURE. MARK. 16:15

5/25/36



OFFICIAL ORGAN
OF THE RESTORATION HERALD

Governor General, Korea.
Seoul, Korea.
Most honored sir,-

If I have not addressed you by your proper

title or in the manner which is proper will you please forgive as I do not know the forms proper for your office and country.

This letter is written to get official information as to certain points regarding our missionary work in your country. Conflicting reports continue to reach our office. The information that we need regards matters of fact and which ought to be a matter of record in your files. I enclose a circular letter which includes the matters about which we receive conflicting statements.

Briefly and to the point what we want to know from your office is:

1. Is W.D. Cunningham doing missionary work with the legal permission of the Korean Government in Korea as claimed in No. 1. of the enclosed circular letter?
2. Does W.D. Cunningham have twelve churches in Korea, operating with the legal consent and knowledge of the Korean Government as set forth in No. 2. of the enclosed circular letter.

This letter is not an effort to gather material to embarrass W.D. Cunningham. If your reply contains the information that these twelve churches are actually operating in Korea under the approval of your honored Government we shall be most happy to learn from your office confirmation of such facts. We are friends of W.D. Cunningham and desire to learn the truth from official sources to sustain us in our confidence in him in the face of conflicting statements about his work.

We enclose stamps for reply and hope for an early answer to our questions. We will gladly pay whatever incidental expenses may accrue in securing this information.

Yours in Christ,

Leon L. Myers
PRESIDENT



1453

朝鮮總督府
教育司
南正學

✓이 내용이 <환원 전령> 9월호에 실리자 쉐리는 1936년 9월 24일 리온 마이어즈 회장에게 보낸 반박글에서 존 채이스가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 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호소하였다.

It was easy for me to have the above understanding of Mr. Tomimaga's letter because of outside information which I had received in Korea, perhaps you knew all these things also, but I fear that the casual reader of this letter would only gather the information that the Yotsuya has, and did have, a permit in Korea and that three churches were reported under that permit, and therefore any criticisms were unjustified.

I fully realize the tremendous pressure which has been brought here in America against the spread of the truth concerning the Mission situation in Korea. Since the death of Mr. Cunningham I realize the impossibility of spreading this truth and have ceased to press this point. But I do plead with you, and all who are sincerely interested in ~~this~~ this ripe field that no hindrance be placed in the way of the effort now being made by Brother Chase.

How terribly the Koreans need the help of a Christian leader who is a resident on the field! Knowing the facts as you do could you not do something to help his going at this critical time?

I am fully convinced that i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Yotsuya Mission would face the facts they would not only help Brother Chase in his present venture, but would also see that all the Korean work be given to his oversight.

God knows, but possibly you are the one who could get them to do just that.

I am praying that God will use you mightily in the spread of His Kingdom.

Sincerely yours,

J. Michael Shelley

J. Michael Shelley

1463

Please return this

Route 3, Eugene, Ore.
Sept 24, 1936

Leon L. Myers
701-702 People's Bank Bldg
Cincinnati, O.

Dear Brother Myers:

Because of a letter on page twelve of the September Restoration Herald, I am moved to write you a few lines. I am writing in the kindest christian spirit and trust that you will receive this note as coming from one who desires to help and not to criticize.

At the bottom of this letter you add ~~this~~ this statement: "This letter is self explanatory and will we hope fully satisfy those who wanted exact information upon the subject." Brother Myers, I am wondering if this letter is really self explanatory, even to you?

Mr. Tomimaga's letter states that there are now three churches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and he gives the addresses of the three. One is in Jinzen, which is Japanese for Cheumulpo, and the other two are in Keijo, which is Japanese for Seoul. Do you know that these are the three churches which are mentioned in the affidavit by H. Takeuchi, a copy of which I enclose? Do you know that one address is a cabbage patch, the second a graveyard, and that the third is a number in the heart of the business district of Jinzen, and that there are no churches at any of these addresses? (Please note altho Mr. Tomimaga gives the Japanese transliteration, rather than the Korean, yet the numbers are identical.)

Do you remember that the Tokyo Christian for June 1935 gives the number of the Korean churches as twelve.

Did you note that Song Nak So continued to hold the Yotsuya permit until January 10, 1936, altho he had not been employed by that Mission for years?

Did you remember that prior to 1928, according to this letter, there was no permit for the Yotsuya Mission, altho they claim to have started their work in 1923?

Did you know that Yi In Pom is one and the same as I. P. Lee who has been the superintendant of the work of the Yotsuya Mission in Korea ever since Song Nak So was discharged, several years ago? And did you notice that altho the permit was officially transferred to him on Jan. 10th, 1936, yet up to the date of Mr. Tomimaga's letter, July 29, 1936, none of the twelve churches mentioned in the June 1935 T.C. had been reported to the Korean Government?

Do you know that this means that the Yotsuya Mission is still working illegally in Korea altho they now have a permit under which this practice could be corrected?

1462

3. '기독교회'(존 채이스 선교사)

✓ 존 T. 채이스(John T. Chase) 가족 1936년 11월 7일 서울 도착.
1937년 2월 25일 포교관리자 변경계 제출 (경성부 송월정 32번지)

11월 7일

11월 7일

右教管理者變更更屆
 全般都合ニ依リ當派布教管理者左記ノ通り
 變更致候間新舊布教
 此段及御届候也

昭和十二年二月二十五日

東鐵道京城府南大門通多目二五番地
 舊布教管理者 Michael Buckley
 也、三カエル、シエリ

東鐵道京城府南大門通多目二五番地
 新布教管理者 John Taylor Chase
 也、三カエル、シエリ

朝鮮總督 南次郎 殿

一、宗教及共、教派ノ名稱
 基督敎 基督敎會

二、舊布教管理者ノ氏名
 也、三カエル、シエリ

三、新布教管理者ノ氏名
 也、三カエル、シエリ

東鐵道京城府南大門通多目二五番地
 多目二五番地

以上

11.3.25

1109

- ✓ '기독교회' 포교관리자 변경계 조선총독부 관보 게재안
- ✓ '기독교회' 선교부직인

三 完結
 種 甲

朝鮮總督府
 12.5.4
 官報掲載

學務局長
 社會教育課長
 事務官
 主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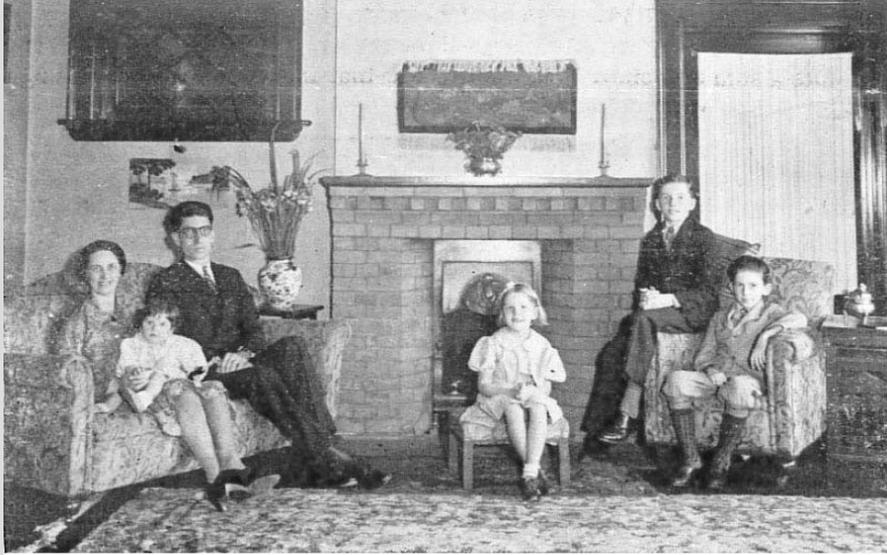
官報掲載案
 布教管理者變更届
 布教管理者變更届ヲ提出
 シタル者左ノ如シ

昭和十二年 一月十五日	昭 和 十 二 年	一 月 十 五 日								
基督教會	基督教會	基督教會	基督教會	基督教會	基督教會	基督教會	基督教會	基督教會	基督教會	基督教會
舊管理者氏名	舊管理者氏名	舊管理者氏名	舊管理者氏名	舊管理者氏名	舊管理者氏名	舊管理者氏名	舊管理者氏名	舊管理者氏名	舊管理者氏名	舊管理者氏名
住 所	住 所	住 所	住 所	住 所	住 所	住 所	住 所	住 所	住 所	住 所
氏 名	氏 名	氏 名	氏 名	氏 名	氏 名	氏 名	氏 名	氏 名	氏 名	氏 名

1108
 12.4.28



✓경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 '기독교회 선교부'



1939년 송월동주택, 좌측부터 사모 와네타(Wahnetta Smith)와 로이스(Lois), 존 T. 채이스(John T. Chase), 네이딘(Nadine), 케네스(Kenneth), 로버트(Robert)



영국해외성서공회가 소유했던 이 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던 채이스 선교사는 1939년부터 매입을 추진하였다.

●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들

✓제1대 J. 마이클 셸리 선교사: 1935.4.25-1937.02.25

✓제2대 존 T. 채이스 선교사: 1937.02.25-1941.03

1937.09.06 채이스 선교사 포교계 제출,

1937.06.23 기독교회 신당정 교회(김요한) 제출,

1937.10.10 기독교회 돈암정 교회(최상현) 제출,

1939.03.29 기독교회 경성 내수정 교회(성낙소) 제출,

1940.01.23 기독교회 경성 돈암 제2교회(김문화) 제출,

1940.05.17 기독교회 정릉리 교회(박판조) 제출,

1940.10.26 기독교회 왕십리 교회(백낙중) 제출.

✓제3대 김요한 목사: 1941.03-1944.06.26

1940.09.17 기독교회 초도리 교회(송암 승웅)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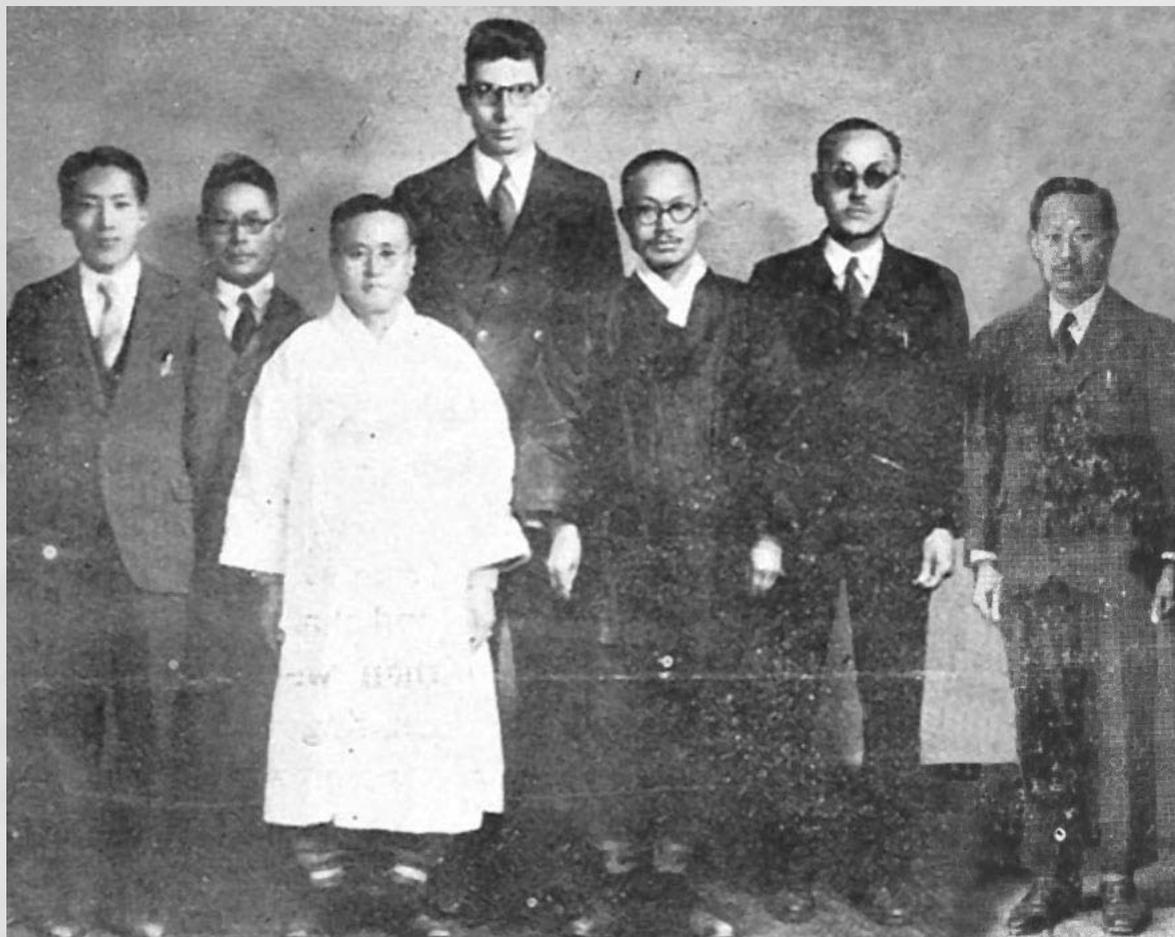
1944.06.26 포교관리자폐지계 제출

1944.06.30 '기독교회' 포교자 및 포교소 폐지계 제출

포교자: 김요한, 존 T. 채이스, 김문화, 산천룡, 송암 승응,
포교소: 신당정 교회, 왕십리 교회, 돈암 제2교회, 정릉리 교회, 초도리 교회

<p>○昭和十九年十月七日 朝鮮總督府慶尙北道參與 官兼朝鮮總督府道務官 依願免本官致仕官 三州 海用</p>	<p>○彙報 ○宗教</p>
<p>○布教所廢止屆 布教規則第十一條ニ依リ布教所廢止屆ヲ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屆出年月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ノ名稱 所 在 地 昭和十九年七月十二日 天主公教 慶鏡北道慶興郡維基邑維基洞一六二ノ二 維基邑公所</p>	<p>同六月三十日 基督教會 京城府城東區新堂町二三六ノ六二 新堂教會 同下往十里町八九三 同 同 同東大門區教岩町山五五 同 同 同京畿道高陽郡崇仁面貞陵里一四五ノ四 同 同 同江原道高城郡縣內面草島里二〇〇 同 同 同慶尙北道英陽郡石保面宅田洞二九五</p>
<p>同日一月日 東亞基督教會 宅田布教所 同十八年二月十九日 救世團 同慶州郡內東面壽坪里一〇 同十九年七月二十五日 同救世軍第四小隊 京城府中區光熙町二丁目一七三 同六月十七日 朝鮮寺刹 泰恩寺峴底洞布教堂 同西大門區峴底町山二ノ一</p>	<p>○寺有建物廢棄處分許可 許可年月日 建物ノ名稱 建坪 所 在 地 出 願 人 昭和十九年十月五日 明月堂 一〇九坪 慶尙南道陝川郡御儲 慶尙南道陝川郡御儲所 宗務官 四合一勺 面細仁里海印寺內 寺 住持 松原 宗務官</p> <p>○司法、警察及監獄 ○辯護士名簿登錄 藤田定弘(慶尙南道鎭山府昭和通四丁目一番地)ノ申請ニ因リ昭和十九年十月三日鎭山地方法院檢察局ニ於テ辯護士名簿ニ登錄ヲ爲シタリ</p>

朝鮮總督府官報 第五三〇六號 日刊(朝鮮日報及) 昭和十九年十月十日(朝鮮日報)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내국인 사역자들(1937-40)
좌측부터 박판조 목사(청량리교회), 백낙중 목사(공덕교회), 김요한 목사(신당정교회),
채이스 선교사, 최상현 목사(돈암정교회), 김문화 목사(산동암정교회, 성낙소 목사(내수정교회)

4. '기독교의교회'(동석기 전도자)

✓1930.11 미국에서 귀국, 고향 북청에서 '기독교의교회' 개척.

✓1937.05.12 '기독교의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 제출
(경기도 경성부 다옥정 48번지).

1937.07.06 다옥정 기독교의 교회(동석기) 제출,

1937.07.06 동교 기독교의 교회(강문석) 제출,
(경기도 경성부 동교정 59번지),

1937.09.23 경주 기독교의 교회(강문석) 제출,
(경북 경주군 경주읍 노서리 77번지) .

1937.10.27 대현 기독교의 교회(이용주) 제출,
(경기도 경성부 공덕정 산6의 57번지).

동석기 전도자의 함경남도 북청군의 교회들

1938.04.04 서흥 기독교의 교회, 함전 기독교의 교회, 빙애
기독교의 교회, 만경 기독교의 교회 제출,

1938.05.07 수동 기독교의 교회, 죽평 기독교의 교회, 수서
리 기독교의 교회 제출.

5. '조선선교회 기독교회'(이인범 목사)

✓1936.01.10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 변경계 제출(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

✓1936.07.08 교파명변경계('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제출.

✓1943.09.17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이인범을 평산 무웅으로) 제출.

✓1943.09.30 평산 무웅, 이인범의 포교폐지계 제출.

朝鮮總督府 11.8.21 官報掲載

學務局長 社會課長 事務官

年 月 日 出 屆 出テタル者左ノ如シ

昭和十一年七月八日	舊教派名 東京四谷宣教會 基督教會	新教派名 基督教會 朝鮮宣教會	布教管理事務所所在地 京畿道仁川府松岷里平倉地
-----------	-------------------------	-----------------------	----------------------------

律報掲載案 教派名稱變更ノ旨

記帳及枚合簿

34f 0447

● ‘요츠야선교회’의 조선포교관리자들

●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들

✓ 제1대 성낙소 목사 1932.06.11-1936.01.10

▪ 3개 교회 계출: 기독교회 경성교회(성낙소), 기독교회 아현교회(김문화), 기독교회 인천교회(성낙소).

✓ 제2대 이인범 목사 1936.01.10-07.08

●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들

✓ 제1대 이인범 목사 1936.07.08-1943.09.17

▪ 1936.09.04 신신근(송현기독교회), 김영배(유정기독교회)의 포교계 및 성낙소, 김문화의 포교폐지계 계출.

▪ 1936년 12월말까지 성낙소 명으로 된 모든 것을 이인범 명으로 계출.

▪ 1937.05.10 오봉기독교회(장신주), 방현기독교회(김성산),

▪ 1937.05.12 김상익(마장정기독교회), 용포동기독교회, 문인동기독교회(최성진),

▪ 1937.06.21 정삼선(금곡정기독교회),

▪ 1937.10.31 유정기독교회 ‘화정’으로 포교소명칭변경계 계출,

▪ 1937.11.04 김태희(마산기독교회), 이난기(염리기독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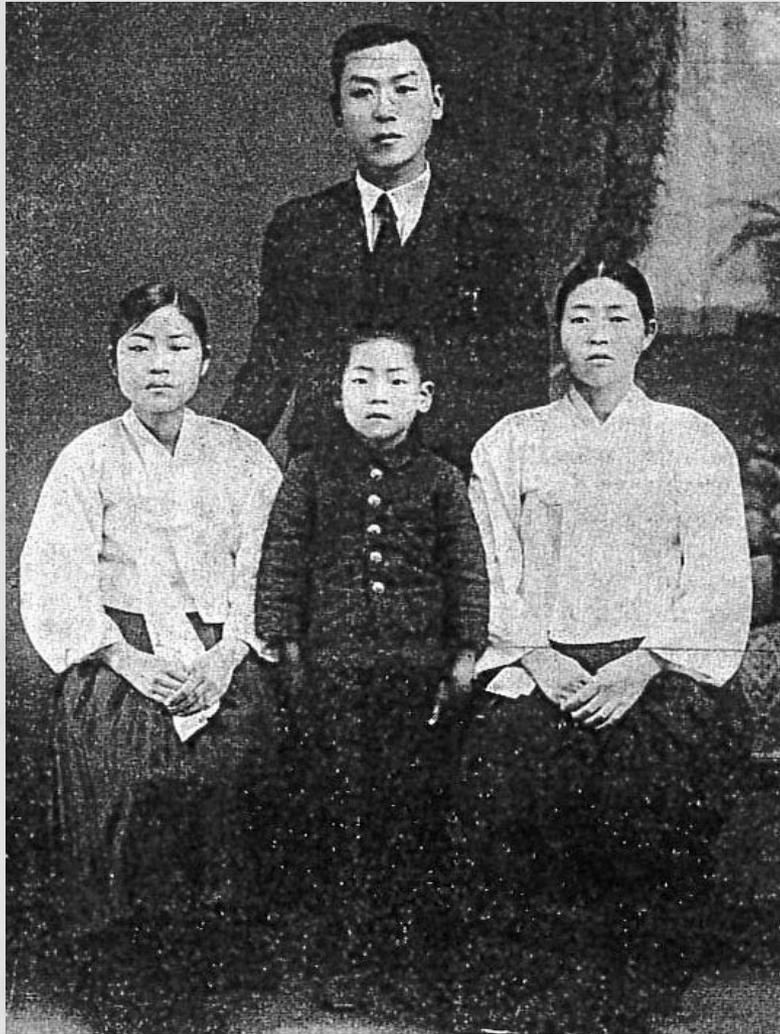
▪ 1938.08.22 윤낙영(영등포기독교회) 계출.

- 1939.01.31 김태희(대구부 덕산정기독교회),
- 1940.03.09 송기준(마산기독교회),
- 1940.03.11 임준식(인천부 대화정기독교회),
- 1940.03.15 신마산기독교회(송기준), 구마산기독교회,
북마산기독교회,
- 1940.08.19 경성부 대흥정기독교회(임공철),

▪1942.02.01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현천리기독교회 계출.

✓제2대 평산 무웅(신신근) 1943.09.17-46년 12월 2일까지

- 1943.09.30 이인범의 포교폐지계 계출,
- 1943.09.30 아현정기독교회 포교담임자변경계
(이인범을 송산 의웅으로) 계출,
- 1944.09.30 염리정기독교회 포교담임자변경계
(이난기를 유지욱으로) 계출.



이인범 조선토교책임자 가족
케네딕 선교사가 한국의 껌벌 또는 여호수아로 치켜세웠던 인물

**1941년 4월 1일 종교법 시행이후 외국인 선교 및 후원 중단,
요츠야선교부 한국선교 포기, 일본 주재 선교사들 본국 철수.**

- 1941년 3월말까지 17년간 한국에 교회 17(19)개, 선교기지(포교소) 30개, Bible Training School 운영, 한국인 사역자 13명과 여전도사들 후원.
- 인천 4개, 서울 5개, 평북 구성군 2(3)개(방현면, 오봉면, 평지동), 평북 정주군 3(4)개(용포동, 문인동, 약수포, 근담동), 신의주 1개, 마산 1개, 대구 1개 교회, 일본 동경 2개(삼하도, 심천) 교회와 유치원 및 일요학교들이 있었다.

1941년 4월 1일 이후에 추가된 교회: 1개

- 1942.02.01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현천리기독교교회 계출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1941년 12월 7일 태평양전쟁 발발

•1940년 11월 16일 한국에서 선교사들 철수

•1941년 2월 24일부터 3월말까지 채이스 선교사 방한. 박해상황 목격 및 청취.

•1941년 4월 이후 일본에서 선교사들 철수.

•1941년 12월 7일 아침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 미군기지 기습공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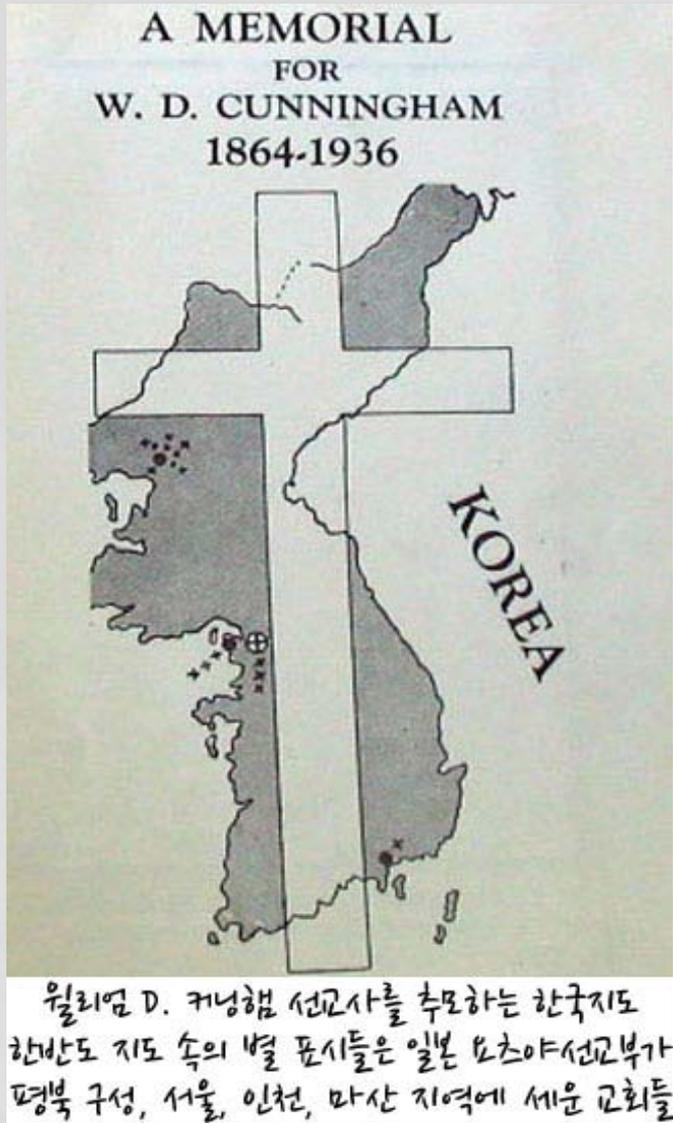
•1947년 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채이스 선교사 방한. 약 4년 반 한국과 연락두절.

•1947년 2월 14일 오웬 스틸 일본 재입국.
약 5-6년간 일본 및 한국과 연락두절.

•1947년 6월 14일 에밀리 커닝햄 일본 재입국.

•1948년 10월 17일-1949년 2월 중순까지 채이스 선교사 한국 재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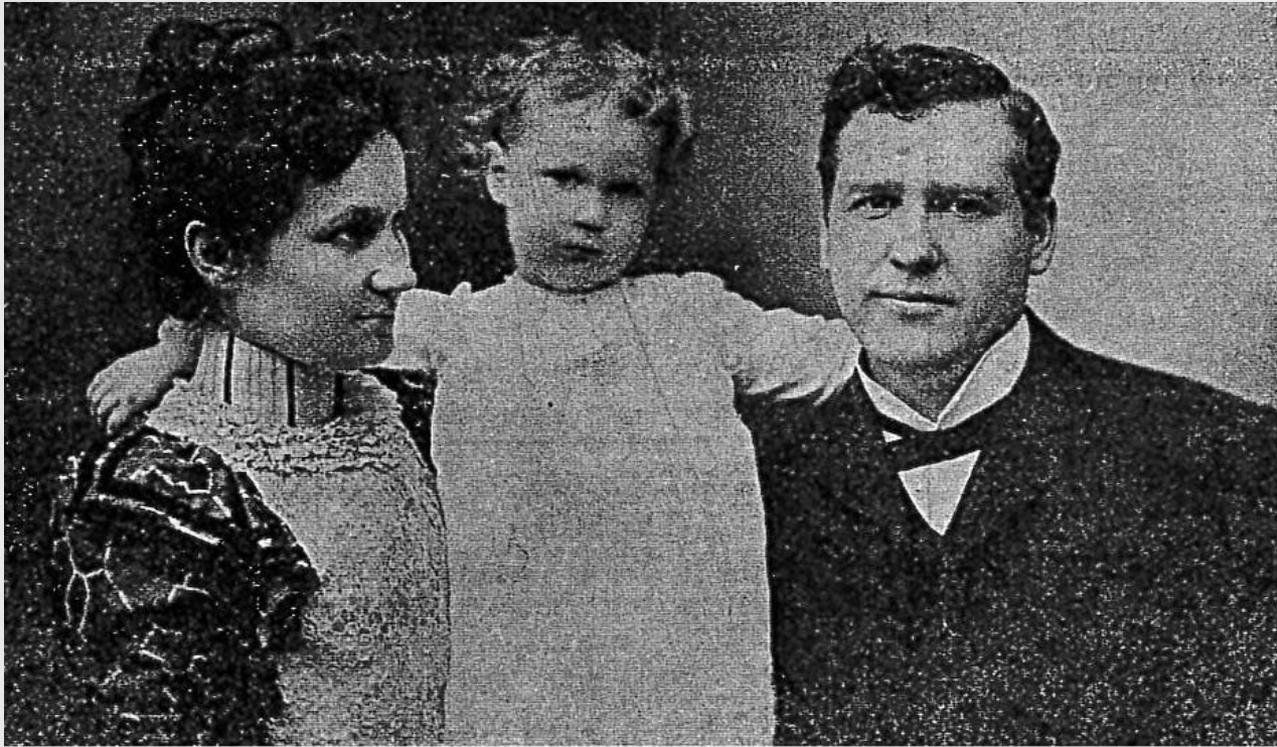
•1949년 2월 18일 힐 선교사 재입국.



태평양전쟁 전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형편

- 후원금(1942년치부터) 중단.
- 채이스, 1941년 후반기에 교회들이 폐쇄당하거나 지하로 잠복했다는 보고, 최상현으로부터 받음. 일제, 송월동재산 몰수(42년) 및 매각(43년).
- 동방요배, 신사참배, 일본기독교조선교단 통합 반대 목회자들 체포, 구금 및 고문당함(이인범, 김요한, 성낙소, 최상현, 김문화, 등).
- 북한의 교회들 생사불명. 유동교회와 금곡동교회, 송현기독교교회와 통합.
- 인천 송현기독교교회, 1946년 12월 10일에 기독교대한성결교회로 재건.
- 요츠야선교부와 관계를 맺었던 사역자들 가운데, 김문화(산 돈암정교회), 성낙소(내수정교회), 이난기(용산교회), 윤낙영(아현정교회) 등이 채이스 선교사와 협력.
- 이인범, 1949년 1월 3일 금산제일장로교회 부임. 1951년 금산에서 별세.
- 이원균, 장로교단에서 사역하다가 1955년에 침례교단으로 옮겼고, 1969년 12월 6일, 82세로 별세.
- 요츠야선교부가 고용한 한국인 사역자들의 대다수가 성결교회 출신.
- 요츠야선교부는 한국에 재산을 소유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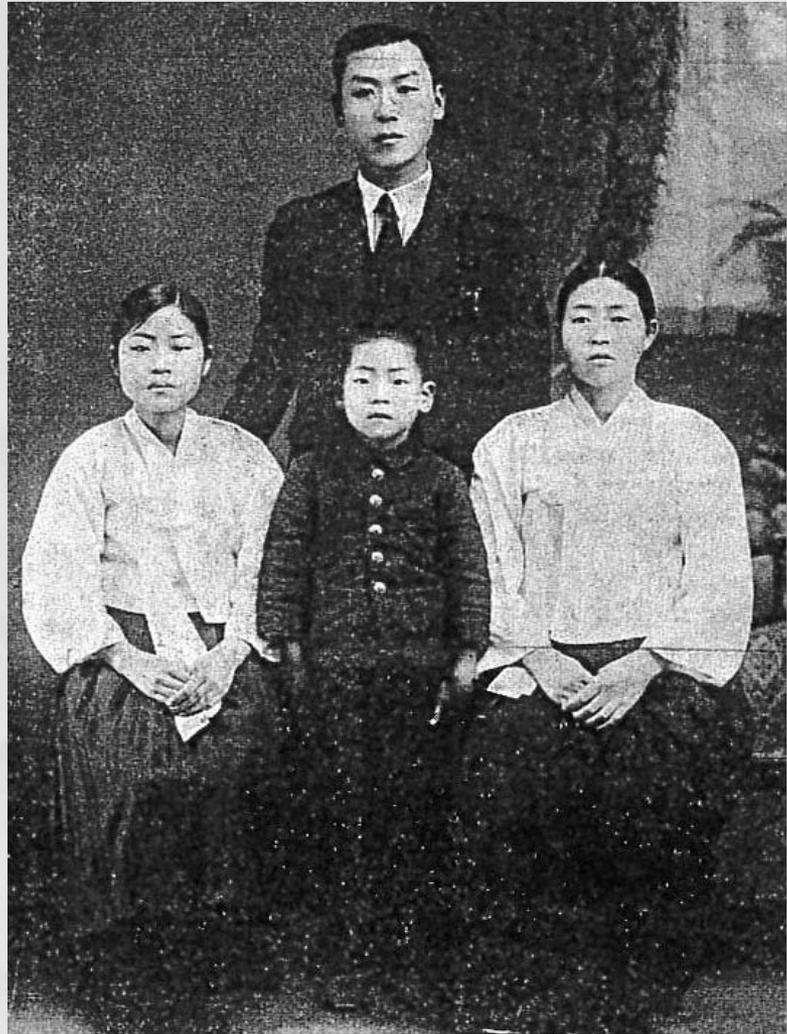
동경사곡선교회 소속의 조선 기독교회들



우측부터 윌리엄, 멜로이즈, 에밀리 보이드 커닝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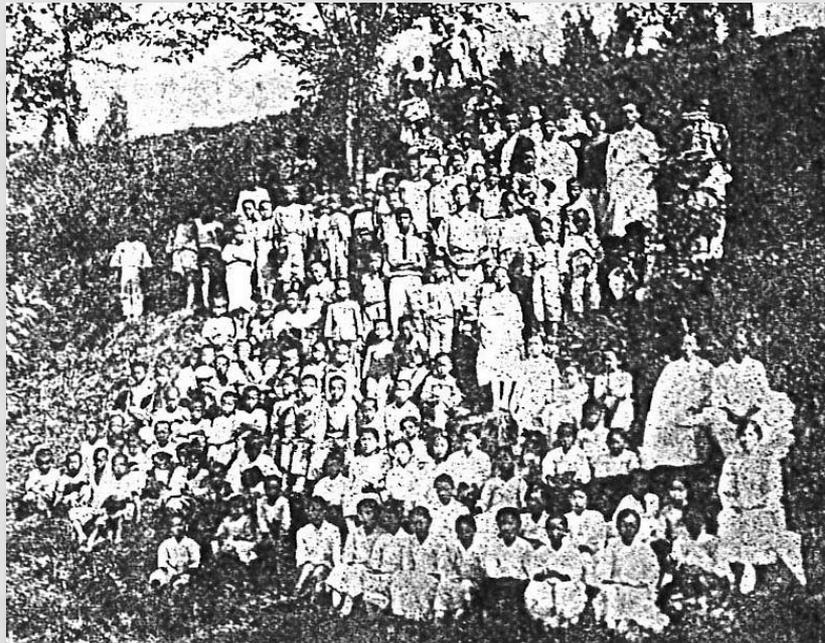
이원균 전도자
케네스 선교사가 한국의 발돋움 스톤
또는 한국의 갈렘으로 치켜세웠던 인물



이인범 조선도교책임자 가족
케네스 선교사가 한국의 캄벨 또는 여호수아로 치켜세웠던 인물

서울 제1교회와 성서훈련원

- 1924년 5월에 선교기지(포교소)로 출발.
- 1930년 4월 27일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로 조직.
- 1936년 9월부터 이인범 목사가 시무. 임화순이 여전도사로 시무.
- 폐쇄될 때까지 임대교회를 벗어나지 못함.
- 이인범이 한국의 알렉산더 캠벨, 한국의 여호수아로 부각된 것과는 달리 그가 시무한 서울 제1교회는 교세가 약했다.



서울 선교기지 일요학교 어린이들과 교사들
(1929년 8월 4일 촬영,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 박흥순 목사)



在京城主日學校
1930.12.6
경성(서울)기독교회 주일학교(1930년 12월 6일)



서울 제기독교회(1939년)
장소미정, 임대건물, 좌측에 앉은 사람이 담임목사 이인범

- **서울성서훈련원**은 핏치 선교사와 이인범 목사에 의해서 1938년 서울 제1교회에서 개교, 아현정의 건물 2층을 임대하여 3년간 지속.
- 교수: 핏치 부부, 애니, 에밀리, 이인범, 김영배, 홍종숙(1939년부터).
- 주간: 남자 7명, 여자 5명, 야간: 남자 11명, 여자 2명. 다수가 현직 목회자 또는 여전도자들이었다.



요츠야선교부의 서울 성경훈련원의 교수들과 학생들(1938년)



서울 성경훈련원 학생들과 오웬 스틸 선교사(1939년)

서울 제2교회

- 담임 이난기 목사(협성신학교 졸업)
- 이난기는 해방 후 용산교회를 가지고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교회 선교부'(The Korean Christian Mission)에 합류.
- 채이스 선교사가 1948년말부터 1949년 초에 두 번 가본 용산교회의 특징은 남녀가 구별된 자리에 착석한 것과 남신도가 여신도들보다 더 많다는 점이었다.



이난기 목사: 요츠야선교부 서울 제2교회



서울 제2교회 성경공부반(이인범이 매일 2시간씩 강의, 1937년)
뒷줄 좌측부터 커녕희 부인, 이난기 담임목사, 이인범 목사, 슈멜 양

서울 제3교회

- 김상익은 장 M. Y. 전도자에 이어 제3교회를 담임하였다.
- 김상익은 제3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동안 서울성경훈련원에 등록하여 공부하였고, 1940년에 졸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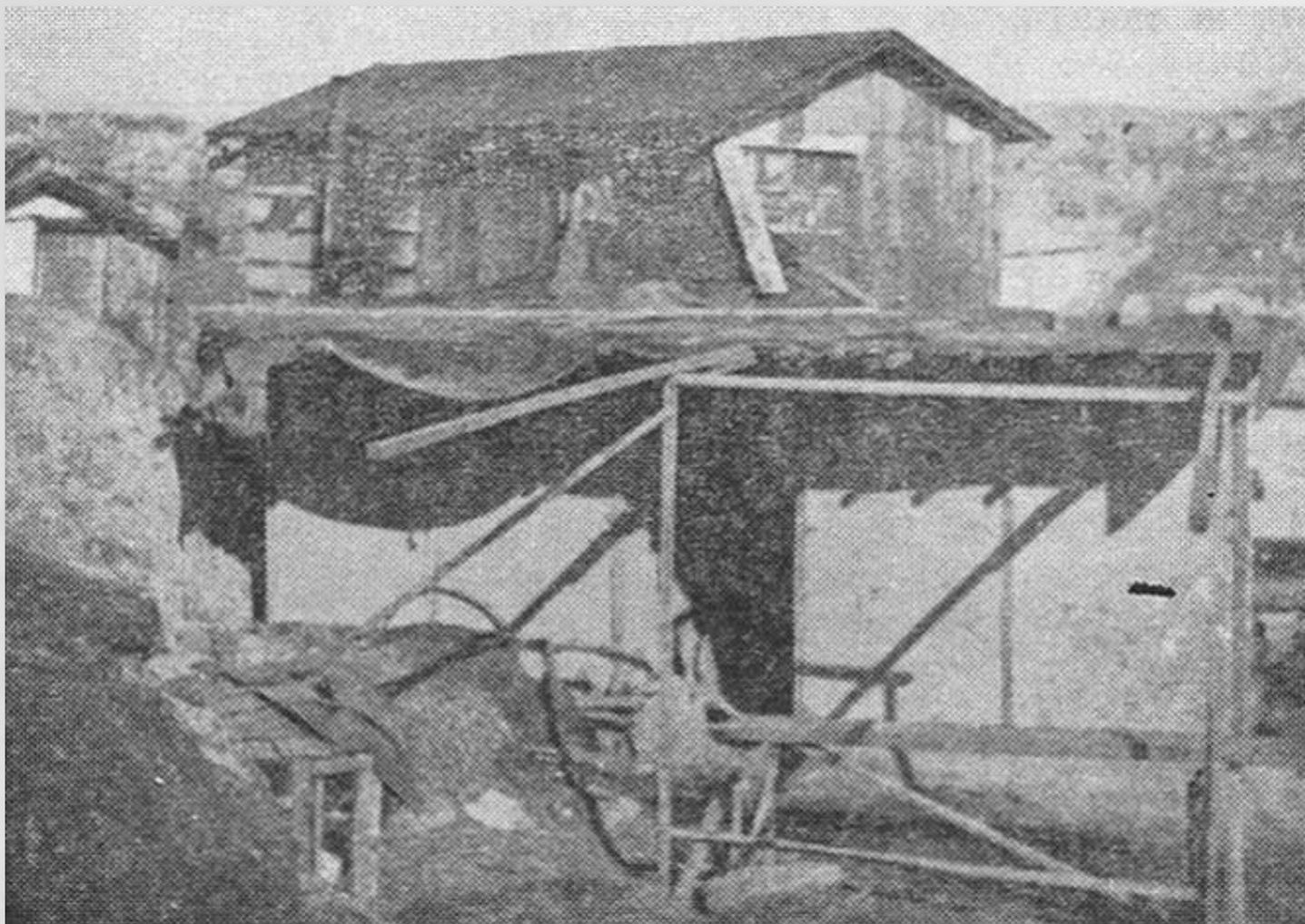
김상익 목사(서울 제3기독교교회 담임, 1936년)

서울 제4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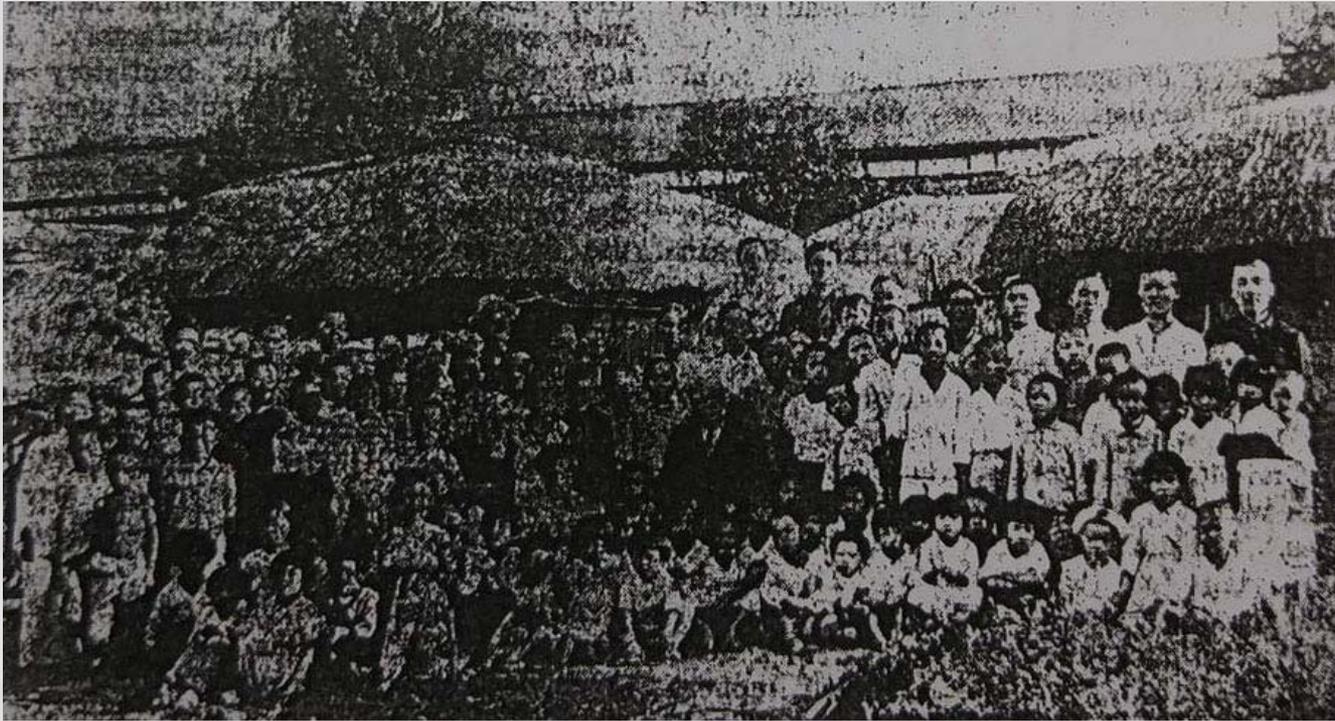
- 담임 윤낙영 목사(경성성서학원 졸업).
- 1936년 아현정에 개척, 이권신 여전도사 시무.
- 성낙소 목사 소개로 해방 후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교회 선교부' (Korean Christian Mission)에 합류. 성낙소의 필운동교회가 후원.



서울 아현기독교회(1936년 3월 22일)



윤낙영 목사가 시무하던 아현동 그리스도의 교회(1948년말-1949년초 사이)
방 두칸짜리 2층이 집회소였고, 80여명이 착석해 예배를 드렸다.
천정이 낮아 채이스 선교사는 상체를 세우지 못했고,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다.



호츠야선교부의 서울 제5교회(1939년)

임공칠 전도자가 자신의 집에서 1939년 8월에 서울 제5교회의 제8주일학교로 개척하였다. 1940년에 이 교회는 서울 제5교회로 소개되었다. 사진은 1939년 가을 오웬 스틸 선교사 방문 때 촬영된 것이다. [자료: Christian Standard, 25 November 1939]

서울 제5교회

- 담임 임공칠(서울성서훈련원 학생).
- 여전도사 평화일(서울성서훈련원 학생).
- 임공칠의 집에서 예배드림.

인천지역 선교사역



정삼선 전도자(1934년)

- 인천지역선교는 성낙소 목사가 포교책임자로 부임한 때부터 본격화 되었다.
- 서울 제1교회(박흥순 목사) 집사 정삼선이 1930-31년 사이 전기사업 차 인천에 내려가 유진우와 함께 시작하였다.
- 1931년 9월에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로 부임한 성낙소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제1교회)과 인천(남동, 송현)을 오가며 교회들을 돌보았다.
- 인천지역의 첫 교회는 난도(남동)교회(요츠야 선교부의 제15번째)였다. 이인범이 포교책임자로 부임한 후로 보고된 바 없다.
- 인천지역의 두 번째 교회가 송현교회(요츠야선교부의 제16번째)이다. 1932년 4월 9일 교회로 승격.

송현기독교교회(인천 제1교회)

- 1935년까지 조선포교책임자 성낙소와 이인범이 교회를 섬겼다.

- 1934년 건축시작.

- 1936년 성결교출신 신신근 목사 파송(교인 100여명).

- 김영배는 유동(인천 제2교회 30여명), 정삼선은 금곡동(인천 제3교회 20여명) 선교기지를 맡아 관리하여 교회로 발전시켰다.

•성서훈련원과 유치원

- 신신근이 담임목사로 부임한 1936년에 성서훈련원이 개설되어 주 4회 야간에 한 시간씩 성서교육이 실시되었다. 학생은 16명이었고, 김영배 전도자, 신신근 목사, 박사은 집사가 가르쳤다.

- 송현기독교교회 유치원은 등록수가 170명에 달했다.

- 신신근 목사 소천(1946년 12월 2일) 8일만에 송현기독교교회는 1946년 12월 10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로 재건되었다.



인천 송현기독교교회 담임 신신근 목사(1936년)



인천 송현기독교교회(1934년 5월 6일)

안중 좌측에서 세 번째가 김영배 집사, 네 번째 점점봉차림이 설립자 정삼선 집사(전도자)이다.
 정집사는 서울기독교회 출신이며, 1931년에 제주도에서 내리거와 전기사업을 하면서 전도하여 교회를 조직하였다.
 그 때문이었는지 인천송현기독교회 예배당에는 전기사설이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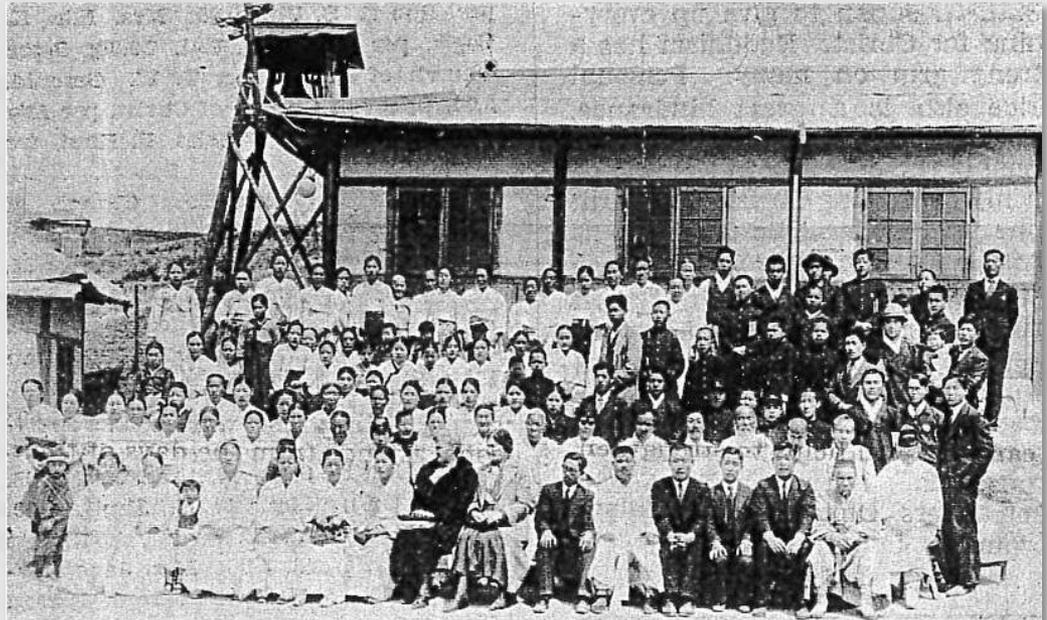


마이클 쉘리 선교사 환영 기념 사진(1935년 3월 24일)

인천(송현)교회로서 커닝햄이 소천 3개월 전에 헛치와 방문했던 곳이다. 쉘리의 우측이 딸 레이철이고 그 옆이 이인범이다. 쉘리 부인 옆은 공립교사 출신이므로 쉘리와 선교부를 도왔던 김영배 집사이다.



케네스 선교사가 소천 3개월 전 헛치 선교사와 함께 방문했던 인천송현기독교회(1936년 3월)



인천 송현기독교회(1937년 4월)

종탑이 새로 세워졌다. 슈멜 양 옆자리의 왜소한 사람이 담임목사 신신근이다.



인천 송현기독교회 주일학교 학생들(1939년, 담임목사 신신근)



仁川基督敎會 神冬校創立紀念攝影
1936-10-5

인천(송현)기독교회 신학교 창립기념(1936년 10월 5일)

앞줄 중앙이 토마스 헛치, 헛치 우측이 김영배, 헛치 좌측부터 이인범(어린이), 담임목사 신신근

유동기독교회(인천 제2교회)

- 김영배 전도자가 개척하여 1936년 6월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
- 김영배는 동경 와세다대학교(학사), 상해 성요한대학교(석사)를 졸업.
- 월 100엔의 급여를 받는 공립학교 교사직을 포기한 전도자.
- 1932년부터 요츠야선교부를 도와 통역과 서신 번역.
- 인천송현교회 성서훈련원 교수, 149명이 등록한 기독교초등학교 설립자, 교사, 교장.
- 일제탄압으로 1943년 5월 금곡동기독교회와 함께 송현기독교회에 병합.



김영배(인천제2교회)



김영배 전도자가 선교기지를 세워 교회로 발전시킨 인천유동기독교회(1933년)



김영배 전도자가 개척한 유동(Yanagicho)기독교회 주일학교(1936년)



인천 유동기독교회 성경공부반(1937년 4월 11일)
좌측 끝이 김영배 전도자, 그 옆이 에밀리 보이드 커닝햄 여사와 슈멜 양

금곡동기독교회(인천 제3교회)

- 송현기독교회의 창립자인 정삼선 전도자가 개척하여 1936년 5월에 부임.

정삼선 전도자

- 송현기독교회당 건축(송현교회는 건축비 일부와 1941년까지 사택임대료를 요츠야선 교부로부터 후원 받음).
- 인천에 전기사업자로 내려갔다가 전도자로 헌신.
- 서울성서훈련원을 인천에서 서울까지 약 74km을 자전거로 통학하여 1940년에 졸업.
- 일제탄압으로 1943년 5월 유동기독교회와 함께 송현기독교회에 병합.
- 송현기독교회는 1945년 11월 송학동 2가 18번지 소재 일본 감리교회를 인수하여 정삼선 목사, 유진우 장로(송현교회 창립멤버) 및 70여명의 성도를 분가시킴. 1946년 11월 16일 월남한 14명의 장로교인들이 합세함으로써 제일장로교회가 됨.



인천금곡동기독교회를 개척시무한 정삼선 전도자(1937년)
서울기독교회 출신으로 인천송현기독교회를 시작하였다.

인천 제4교회

- 인천 제4교회는 서울성경훈련원 학생인 임전식이 1939년 4월에 개척.



임전식 전도자(인천 제4교회, 1940년)

평안북도지역선교사역

•1924-1927년까지 서울에 선교기지(포교소)를 세우는데 기여했던 이원균은 사역을 접고 중단했던 신학을 마치기 위해서 경성성서학원에 복학하였다.

•이원균이 학업을 마치는 동안 경제적 도움을 주었던 요츠야선교부는 이원균을 평북 구성군에 파송하였다.

•이원균이 **평북 구성군 방현면**에 들어간 것은 성낙소가 포교책임자를 맡고 있던 1932년 말 혹은 1933년 초였다.

•이원균 목사는 1937년 동경 삼하도 조선기독교교회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4년 반 기간에 구성군에 2개(방현, 오봉), 정주군에 2개(용포, 근담), 황해북도 중화군(대류)에 1개, 신의주에 1개 교회, 선교기지 10개를 세우는 성과를 거뒀다.



자전거 선물을 받은 이원균 목사(1934년 12월 13일)

평북 구성군 방현기독교회

- 요츠야선교부 산하 그리스도의 교회들 가운데 가장 큰 교회였다.
- 방현기독교회는 예배당 건물, 유치원 건물, 사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 부목사, 여전도사, 장로 3명, 집사 10명, 교인 170여명. 부자(父子)가 내과의사인 Y. D. Cheh 원로장로와 R. R. Cheh 시무장로가 있었다.
- 정주역에서 25킬로미터 떨어진 방현(芳峴)은 일본 말로 ‘호겐’(Hoken)으로 불렸으며, 인구 4,000여명이 사는 면소재지였다.
- 커닝햄 부부, 히치, 씬멜, 스틸 등이 이곳을 방문하였고, 1940년 스틸이 방문했을 때 체육회가 열렸는데, 일경이 진행시킨 의식을 목격하였다: 1) 국가 기미가요 합창, 2) 동방요배(궁성요배), 3) 전사 장병 묵도, 4) 황국신민서사 낭독, 5) 식사(式辭), 6) 천황폐하 만세 삼창.
- 담임목사의 사례비는 방현교회와 선교부가 절반씩 책임을 졌다.
- 이원군 목사가 성장한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동경 삼하도조선기독교회로 자리를 옮겨감에 따라 48세의 김성산 목사가 1937년 4월 제2대 목사로 부임하였다. 그러나 김성산 목사가 방현교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자 주정국 목사가 제3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平壤新開國第九回保赤式紀念
1935.3.23



평북 구성군 방항현기독교회는 이원균 목사가 개척하여 성장시켰으며, 모츠야선교부 내에서 가장 컸다. 우측 건물은 600명이 앉을 수 있는 본당(1935년)이며, 좌측은 유치원 제9회 졸업기념사진(1935년 3월 23일)이다. 유치원은 구 예배당 건물에서 운영되었다.



方峴基督敎會紀念攝影
1935-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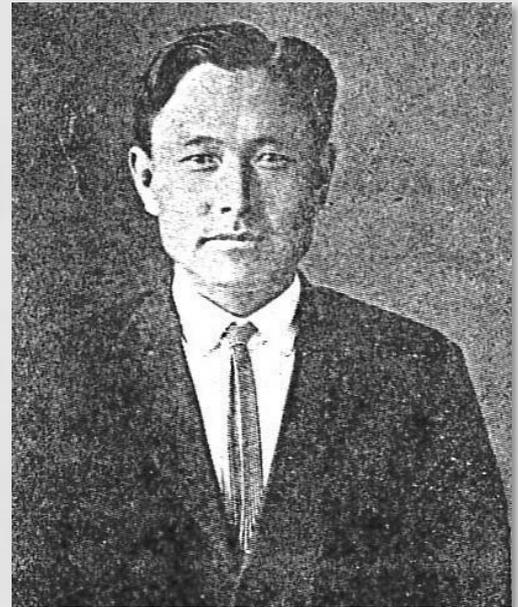
평북 방항현기독교회 1935년 4월 21일



평북 구성군 방현기독교회 일부 성도들(1936년, 교인 1730명, 장로 30명, 집사 70명). 헛치(뒷줄 중앙) 좌측이 이원권, 헛치 우측이 김영배(통역)와 이인범이다. 우측 양복차림의 두 사람이 내과의사 가족 장로들로 추정된다.



평북 구성군 방현기독교회 제2대 목회자 김성산(1937년)



주정국 목사(1935년)
동경 삼천조선기독교회 제3대 담임 목회자,
평북 방현기교회 제3대 담임 목회자

평북 구성군 오봉기독교회

• 오봉기독교회는 방현기독교회의 선교기지(포교소)로 출발하여 1933년에 땅을 매입하고 1934년에 건축하여 설립된 교회였다. 방(H.C. Pang) 목사가 부임하였으나 그가 신구약성서가 동일하다고 집요하게 고집함으로 요츠야선교부는 그를 해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임으로 장신주 목사가 부임하였고, 교인 50여명에 장로들이 있었지만, 오르간이 없었다. 1935년 4월에는 부지를 더 확보하였다.



평북 구성군 오봉기독교회: 담임목사 장신주(1936년)와 예배당



평북 오봉기독교회 1934년 2월 24일

평북 구성군 평지동기독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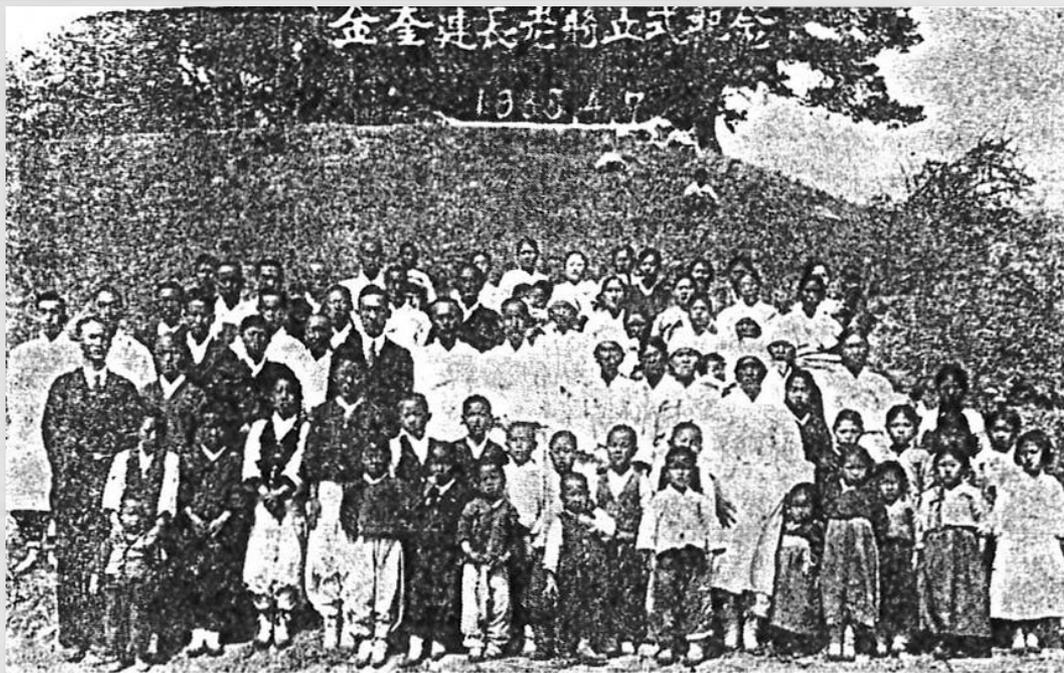
평북 구성군 서산면 평지동에서 20여명이 모이던 교회가 신약성서 기독교회로 환원한 곳이었다. 이용섭이 목회자로 부임하였다.

평북 정주군 용포동기독교회

- 평북 정주군 고현면 용포동에 세워진 교회로써 **윤형구** 과부집사가 기증한 마을 언덕의 큰 부지에 작은 예배당을 1934년에 지었다.
- 류(W. K. Ryu) 목사가 부임하여 섬겼으며, 그는 부임 중에 오봉교회의 박(K. E. Pak) 장로의 딸과 결혼하였다.
- 교인이 50여명이었고, 1935년 4월 7일 김규런 집사가 장로로 장립되었지만, 오르간이 없었다.
- 1935년에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였는데, 건축비용의 3분의 1은 선교부가 지원하였다.
- 커닝햄이 소천하던 해인 1936년에 만들어 배포한 달력에 이 윤형구 집사의 경건한 모습의 사진이 담겼다.



평북 정주군 고현면 용포동기독교회: 건축부지를 기증한 윤형구 집사(1935년)와 예배당



평북 정주군 고현면 용포동기독교회의 김규현 장로 장립식기념(1935년 4월 7일)



방현기독교회의 장로 최성진(1937년)
평북 정주군 용포동기독교회와 문인동기독교회를 섬겼다.

평북 정주군 문인동기독교회

- 문인동기독교회는 평북 정주시 옥천면 문인동에 세워진 교회로서 교인 30여명이 모였다.
- 외진 곳에 위치하였지만, 이곳에서 2명이 서울성서훈련원에 입학하였다.
- 최성진 장로가 담임하였다.
- 2011년 독립유공포상자에 추서되었으나 훈장(애족장) 미전수자 명단에 올라 있다.

평북 정주군 약수포기독교회

- 약수포기독교회는 10여명이 모인 곳으로 집사인 호텔주인에 의해서 여름휴양지에 지어졌으나 여름에는 교회에서 모이고, 겨울에는 집사의 집에서 모였다.
- 담임목사는 없었다.

평북 정주군 근담동기독교회

- 평북 정주군 관주면 근담동의 선교기지였다.



평북 정주군 관주면 근담동 선교기지(1935년 9월)

신의주기독교회

- 김명철이 신의주 선교기지에서 매주 3번 예배를 인도하였다.
- 동경 심천조선기독교회를 섬겼던 주정국 목사가 신의주기독교회 설립을 위해서 1938년 선교부에 후원을 요청하였다.
- 1939년에 방현기독교회에서 장로들 가운데 한 분을 보내 그의 집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모르는 이들이 이끌어갔다.

대류리기독교회

- 이원균 목사에 의해서 1933년에 (황해북도 중화군?) 대류리에 세워진 교회였다.
- 장로 1명, 집사 3명이 선출되었고, K. P. Cheh 목사가 부임하였으며, 건축도 이뤄졌으나 중도에 요츠야선교부와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 위치가 평북인지 황해북도인지 정확하지 않다.

경남 마산기독교회

- 김태희 목사가 세웠으며, 1935년 무렵 교인이 30명이었으나 1936년 말에는 49명이 되었다.
- 1939년에 송송기 목사가 담임으로 부임하였고, 김태희 목사는 새로 시작된 대구기독교회를 맡아 옮겨갔다.



마산기독교회의 김태희 목사(1936년)



마산기독교회



마산기독교교회(1937년)

앞줄 우측부터 김태희 목사, 슈멜 양, 커닝햄 부인, 통역 김영배 전도자

대구기독교교회

- 대구기독교교회는 건물을 임대하여 1938년 7월 31일에 시작되었고, 마산기독교교회를 담임하였던 김태희 목사가 파송되었다.

요츠야선교부의 태평양 전쟁 전후 조치들

- 1941년 4월 1일 종교법이 시행된 이후 요츠야선교부 본국으로 철수.
- 미국에서 <도쿄 그리스도인> 계속 발행.
- 1947년 입국비자가 나와 복귀할 때까지 선교지 교회들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음.
- 1944년부터 <도쿄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지평>(Christian Horizon)으로, 요츠야선교부를 재단법인 '커닝햄선교부'로 개명.
- 1946년 7월호부터 <도쿄 그리스도인> 이름 복원.

일본의 기독교회들

- 1941년 6월 24일 일본 후지미 마찌 교회(富士見町教会)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일본기독교단'으로 전 일본 교회들을 통합.
- 요츠야선교부 산하의 일본인 교회들 가운데 동경 제1, 4, 5교회들을 뺀 나머지 4개와 조선인교회 2개(이성영의 심천기독교회, 이원균의 삼하도기독교회)가 교단통합에 참여.
- 전쟁 중 연합군의 포격으로 대부분의 교회 파괴되고 흩어짐.
- 통합에 반대했던 제4교회만 생존. 담임목사 신한유 중국으로 추방되었다가 전후에 귀국. 신한유의 부인은 교단통합에 참여한 목회자들로부터 탄압 받음.
- 미군정의 입국비자 거부로 선교사들의 입국이 늦어짐.
- 1947년 2월 14일 오웬 스틸 일본 입국. 6월 14일 에밀리 보이드 커닝햄 입국.
- 1948년 초 일요학교 15개로 증가. 선교부 재산 대부분 환속.
- 동경 제4교회를 기반으로 제5교회와 삼하도조선인기독교회 복구.

한국의 기독교회들

- 1941년 4월 1일부터 종교법이 시행됨에 따라 요츠야 선교부는 한국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주던 후원금과 임대료의 1941년 한해 치를 일시불로 앞당겨 지불한 후 한국선교중단.
- 커닝햄 사망 이후 1936년부터 모아왔던 '커닝햄 한국 기념기금'에서 충당.
- *1941년 2월 24일부터 3월말까지 방한한 채이스는 박해상황의 심각성을 목격 및 청취한 후, 선교부와 힐 및 자신의 소유물 가운데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팔아 1941년치 후원금을 남겨놓았고, 선교부를 세놓아 일정한 수입을 얻도록 조치하였다.

한국에서 활동한 초기 선교사들

J.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가족

- 요츠야선교부 후원. 실행위원회 위원 역임.
- 요츠야선교부의 한국 선교사 모집에 지원.
- 1934년 1월 16일부터 한국 입국 준비.
- 1935년 2월 21일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대요마루 (Taiyo Maru)호 승선.
- 1935년 3월 10일 요코하마 항에 도착하여 18일까지 요츠야선교부의 선교활동 견학.
- 1935년 3월 20일쯤 입국. 24일 인천 송현 기독교회 방문.
- <조선선교회>와 단절, <기독교회>설립 및 조선총독부에 등록(1935년 4월 25일).
- 1935년 10월 28일 영구 귀국.
- 이유: 이인범의 “부정직과 비기독교인다운 행위들” 및 자신과 딸의 건강문제.
- 공헌: 채이스 선교사의 명예를 회복시킴. 후원자들에게 채이스를 돕도록 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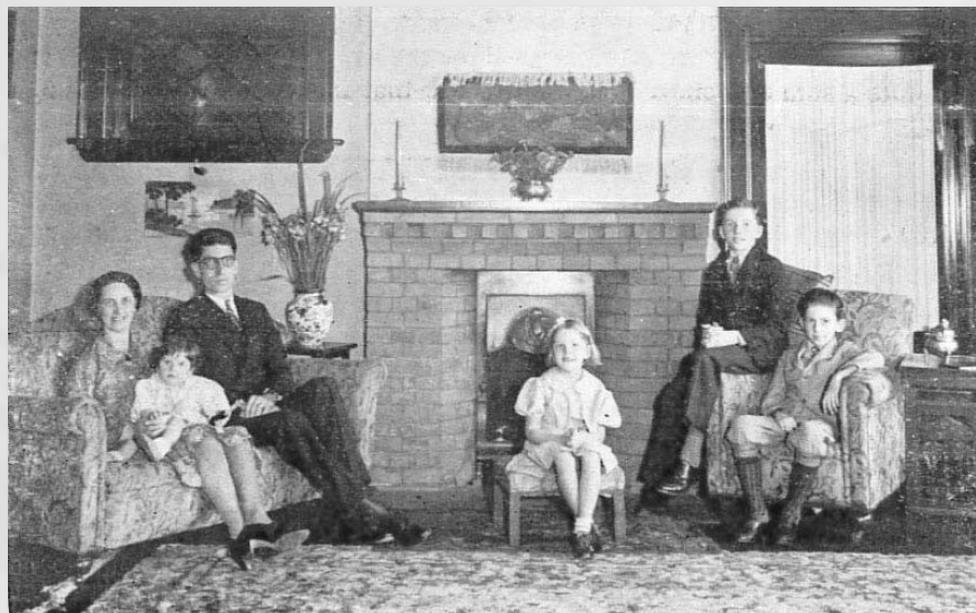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선교사 가족(1935년)
한국에 최초로 파송된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로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요츠야선교부를 후원하였으며, 선교사로 오기 직전에 실행위원이었다.

존 T. 채이스(John T. Chase)

- 1927년 3월 4일 채이스 가족 일본 도착.
- 요츠야선교부의 조선인기독교회들에서 자주 설교함.
- 1931년 9월 하순에 요츠야선교부의 한국에서의 선교사역 시찰. 한국에 신약성서기독교를 전파할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느낌.
- 1934년 10월 커닝햄 선교사로부터 파면. 11월 2일 귀국.
- 1936년 11월 7일 독립선교사로 한국 입국. 1937년 2월 25일 <기독교회> 제2대 포교관리자로 조선총독부에 신고.
- <한국인 전령>(Korean Messenger) 발행,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 설립, 송월동선교부 건물 매입, '한국인성서훈련원' 개교, 태평양전쟁 전까지 5개 교회 설립, 선교사들 모집, 1949년 3월부터 1950년 7월까지 주간지 <그리스도인 표준>과 함께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 캠페인 펼쳐 5만 62달러 90센트 모금.



1937년말 한국 성서훈련원(Korea Bible Training Institute)의 제1회 2학기 학생들
 우측부터 김문화 목사, 최상현 목사(동암정교회창립), 채이스 선교사,
 김요한 목사(신당정교회창립), 박낙중(동암정교회출신), 박판조(신당정교회출신), 십대학생



1939년 송월동자택, 좌측부터 사모 와네타(Wahneta Smith)와 로이스(Lois),
 존 T. 채이스(John T. Chase), 네이딘(Nadine), 케네스(Kenneth), 로버트(Robert)

토마스 G. 히치(Thomas G. Hitch) 가족

- 1936년 3월 3일 토마스 와 딸 애니(Annie) 호주에서 요츠야선교부 도착.
- 3월 19일부터 커닝햄과 함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 시찰.
- 1937년 3월 2일 부인 E. 히치와 딸 앨리스(Alice) 일본에 합류.
- 1938년 2월 18일 토마스 한국에 상주하기 위해, 3월 24일 부인 E. 및 딸 애니 한국에 상주하기 위해 일본 출국.
- 1938년 딸 에밀리(Emilie) 서울성서훈련원 사역 위해 입국.
- 에밀리 합류 후 서울성서훈련원을 아현정 소재 건물 2층으로 이전.
- 토마스(영국인)와 부인 E.(독일출생)는 티베트 국경지대와 일본에서 오랜 기간 선교사로 사역. 토마스 티베트에서 두 아들 잃고 신경쇠약증에 걸림.
- 히치 가족은 요츠야선교부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8년간 딸들의 교육을 위해 호주에 거주.
- 히치는 요츠야선교부에 부임하여 1937년까지 <도쿄 그리스도인>의 편집과 임시 회계를 맡아보면서 한국 선교지를 감독하기 위해 일년에 1-2차례씩 시찰하던 중 1938년 3월부터 한국에 상주.
- 토마스의 신경쇠약증 재발로 1939년 8월말 가족과 함께 호주로 귀국.



헛치 선교사 부부와 딸 애니(Annie)



헛치의 두 딸, 에밀리(Emilie, 좌)와 앨리스(Alice, 우)(1938년)
애니(Annie)와 에밀리는 서울에서, 앨리스는 동경에서 사역하였다.

오웬 스틸(Owen Still) 가족

- 오웬 스틸 가족은 1937년 10월 9일 샌프란시스코 항을 출발하여 10월 24일 일본 요코하마 항에 도착.
- 오웬 스틸은 환원협의회(Restoration Association)의 전도자였고, 설리는 <환원전령>(Restoration Herald)에 다수의 기사를 썼다.
- 스틸과 채이스는 현 존슨대학교와 신시내티기독대학교 동문. 스틸은 요츠야선교부의 한국 선교지를 시찰하는 동안 자주 채이스의 집에 체류.
- 스틸은 부인 설리의 건강악화로 1949년 5월경에 요츠야선교부 사임.
- 1930년대 말 스틸이 쓴 한국교회들에 대한 소감:
 - 첫째, 열정, 온 맘 찬양, 진실한 기도, 박력 있는 설교가 인상적이었다.
 - 둘째, 친절과 환대에 놀랐다.
 -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높은 것에 놀랐다. 돈을 요구할까 봐 걱정을 안고 한국에 갔지만, 급여를 올려달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가뭄과 가난에 찌들어 있었지만, 주님의 일에 용기 있게 나섰다.
 - 넷째, 전도의 영이 충만하였다. 한국인들은 집중적으로 전도에 힘썼다. 그들은 선교기지를 열어 주일학교를 시작하면 곧이어 교회로 발전시켰다.



오웬 스틸 가족(1937년 10월 24일 일본에 도착)
좌측부터 리베카(8), 셸리, 오웬(14), 루스(6), 오웬, 맬러너(11)



오웬과 셸리 스틸(Owen & Shirley Still) 선교사 부부
요츠야 선교부의 한국선교를 감독했던 스틸은 부인의 건강
악화로 1950년 5월 3일 미국 하와이로 사역지를 옮겼다.

이인범 목사

- 황해도 곡산 사람이며, 1917년 경성성서학원(성결교)에 입학하여 김상준 목사 밑에서 배웠으며, 1920년에 졸업하였다.
- 졸업 후 경안교회와 무교정교회를 거쳐 1921년에 강경교회, 1924년에 동막교회로 전근되었다가 1926년에 면직되었다.
- 면직 후 일본에 건너가 1927년 8-9월경에 요츠야선교부의 동경 삼하도 조선기독교회 선교기지에 투입되었다.
- 1929년 11월부터 1933년 8월까지 근 4년간 동경 심천조선기독교회 제1대 담임자로 섬겼고, 1933년 9월부터 1943년 9월까지 만 10년(합법적으로는 7년 8개월) 동안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로 섬겼다.
- 이인범은 커닝햄이 자신을 ‘신약성서기독교로 조선을 정복할 여호수아’ 혹은 ‘조선의 알렉산더 캠벨’이라며 열광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담임을 맡은 서울 제1교회를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그를 부정직한 인물로 보았다.
- 이인범은 1941년 초 선교부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은 죽을 때까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크게 부흥할 것을 확신한다고 적었지만, 후원이 끊긴 후 장로교회로 이적하였다.
- 1949년 1월 3일 금산제일교회에 부임하여 1951년 금산에서 별세하였다.



이인범 전도사가 1923년에 건축한 북옥성결교회당(등록문화재 42호, 논산시 강경읍 북옥리 96번지)

이원균 목사

- 1887년 함경도 북청에서 출생, 38살 무렵 요츠야선교부에 고용됨.
- 1924년 10월 박제곤 대신 서울선교기지(포교소)에 파송되어 1927년 중반까지 섬긴 후 경성성서학원에 재입학.
- 요츠야선교부의 후원을 받아 신학을 마친 후 1932년 말 혹은 1933년 초에 평북 구성군에 파송 받음.
- 1937년 삼하도조선기독교회에 부임할 때까지 4년 반 정도 기간에 구성군에 2개, 정주군에 3개, 신의주에 1개 교회를 세움.
- 1941년 1월 21일 일본인 4명과 이성영(심천조선기독교회 담임)과 더불어 선교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기독교단' 가입을 가결시킴.
- 1941년 4월 1일 시행된 종교법 때문에 선교부 후원이 끊기고, 태평양 전쟁까지 일어나자 귀국.
- 1955년 침례교단으로 이적하기 전까지 평양신학교 이사장과 예수교 장로회 함남 노회장을 역임.
- 침례교로 이적 후 부산 충무로침례교회 담임, 총회 교육부장 2회, 대한침례신학교 강사 및 교장(1966년)을 역임.
- 1969년 12월 6일 향년 82세를 일기로 별세.

요츠야선교부의 한국 기독교회들이 살아남지 못한 이유들

첫째, 커닝햄 선교사와 요츠야선교회는 한국에 부임한 마이클 셸리 선교사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로 임명했어야 했다.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기존의 조선인 기독교회들이 잘 관리되었을 것이고, ‘조선선교회 기독교회’와 ‘기독교회’로 선교회가 이원화 되는 것과 해방 직후 몇몇 조선선교회 기독교회들이 타 교단으로 재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요츠야선교부는 세계경제대공황으로 후원금이 크게 감소하여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내내 재정부족의 어려움을 겪었다. 선교부 소속의 수많은 사역자들이 모두 급여를 받는 고용인들이었다. 게다가 새로운 종교법과 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들의 고용이 유지되지 못하였다. 신념이나 교리 또는 박해보다 더 무거운 짐은 가난과 배고픔이었다.

요츠야선교부의 한국 기독교회들이 살아남지 못한 이유들

셋째, 커닝햄 선교사는 신학교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목회자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요츠야선교부의 내국인 사역자들의 상당수는 성결교 출신의 목회자들이었다. 커닝햄은 이들 사역자들이 신약성서 기독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기를 바랐고 교육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평북 구성군 오봉기독교회의 방(H. C. Pang) 목사 같은 분은 신구약성서가 동일하다고 집요하게 고집함으로써 요츠야선교부가 해임하기에 이르렀다. 또 심천 조선기독교회의 채호 전도자는 신약성서기독교를 잘 알지 못한 타 교단에서 유입된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를 사임하기에 이르렀다. 기독교회들에서는 침례와 주의 만찬의 집례를 목사뿐 아니라 평신들도 할 수 있었는데, 채호는 목사가 아닌 평신도 전도자였다.

넷째, 요츠야선교부는 일본에서 새로운 종교법이 시행된 1941년 4월 1일부터 한국선교를 포기하였고, 많은 후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다.

다섯째, 일제의 탄압과 박해로 인해서 많은 내국인 사역자들이 매를 맞거나 투옥되었으며, 상당수의 교회들이 폐쇄당하거나 흩어졌다. 1941년 6월 24일 일본에서 '일본기독교단'이 창립되고, 전교회가 강제로 통합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45년 7월 19일에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이 창립되고,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등이 여기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교단통합, 신사참배, 기미가요합창, 동방요배(궁성요배), 전사장병목도, 황국신민서사낭독, 천황폐하만세삼창의 강요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기독교회들(요츠야선교부 및 기독교회선교부)은 처음부터 이를 거부하고 지하로 숨거나 해체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이인범, 김요한, 성낙소, 최상현, 김문화 등이 경찰서에 끌려가 모진 매를 맞고 투옥당하기도 하였다. 성낙소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1940년 가을에 조선총독부가 '일본기독교회조선교단'이라는 명칭으로 기독교의 모든 교파를 통합하기 위해서 각 교파의 대표들을 피어선 성경신학교내 장로교 총회장 사무실에 모이게 하였고, 기독교선교부에서도 김문화, 최상현, 성낙소가 참석하였으나 가입에 반대하였고, 이로 인해서 모진 매를 맞았다.

이들 이유들로 인해서 요츠야선교부의 17(19)개의 교회들과 기독교회선교부의 5개 교회들 가운데 자체 건물이 없는 교회들은 어려움에 직면하자, 또 일부 목회자들이 불법집회로 체포되어 모진 매를 맞거나 투옥되면서 집회를 접고 흩어졌을 가능성이 크며, 최상현 목사가 채이스 선교사에게 보고한 대로 1941년 후반기부터는 강제 폐쇄 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체 건물이 없는 교회들은 대부분 통합교단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통합교단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집회를 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도쿄 그리스도인> 1940년 12월호는 이인범 목사의 보고내용과 송종숙 목사가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1940년 10월 14일)를 소개하였는데, 예배당을 갖지 못한 교회들의 사정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선교사들은 한국 목사들의 보고에 근거하여 건물을 갖지 못하고 가정집에서 집회를 갖는 교회들은 아직 통합교단에 가입할지를 강요받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장차 불법집회로 체포되기보다는 오히려 흩어지게 될 것으로 보았다. 이인범은 동경에 건너가 보고하기를, 서울과 인천의 교회들이 일본기독교조선교단에 가입하기보다는 집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전하였다. 또 에모리대 석사 출신이자 채이스 선교사의 최초 사역자였던 김요한을 통해 감리교에서 환원한 송종숙은 일본과 한국에서의 교단통합에 관한 소식을 접하였으나 아직 당국에 불려갔거나 가입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노라고 썼다.